

구름다리를 건너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름다리란 건물과 건물 혹은 산봉우리와 다른 산봉우리를 잇는 다리를 지칭합니다. 특히 산에 있는 구름다리의 경우 중간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좌우로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는 바람으로 인해 흔들리는 구름다리를 건너는 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역시 우리만큼이나 흔들리는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베드로가 어떤 성향과 기질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때로는 경솔하고 무모하기까지 해 보이지만, 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솔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좌우로 흔들리는 인생길을 걸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사건은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에게 “내 양을 치라”는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부여 받은 사명을 붙잡고 사도로 대략 35년 정도의 기간을 살아간 후 박해의 때가 임박해 오던 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박해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당시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세차게 흔들거리는 인생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성도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2절)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같지 않은 낯설고 이상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줍니다. (2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도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가까운 성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헤어짐의 아픔,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지체를 볼 수 없다는 슬픔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그 분과의 추억이 많은 관계일수록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 분의 부재를 더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거하는 나그네이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때때로 세차게 흔들리며 걷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우리는 과연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 땅의 성도들에게 산 소망, 썩지 않을 유업 그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산 소망은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능동적으로 건져 올려 주는 것, 소망을 회복시켜주는 것,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지 않을 유업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과는 달리 썩지도 쇠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베드로의 이 말이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전한 소망, 유업, 그리고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안전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입니다. (7절)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록 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 자체로 기뻐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8-9절)

세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10-12절)

베드로는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된 그 구원의 소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본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소식은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에” 의해 전해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시로 알게 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졌다”라는 동사는 모두 헬라어 수동태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그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통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롬 10장 17절)

우리의 영이 우리의 내면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9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2/27(월)	2/28(화)	3/1(수)	3/2(목)	3/3(금)	3/4(토)	3/5(주일)
신2-3	신4	신5-7	신8-9	신10-12	신13-15	신16-18

QT

이번 주 QT 말씀

2/27(월)	2/28(화)	3/1(수)	3/2(목)	3/3(금)	3/4(토)	3/5(주일)
삼상17:41-49	삼상17:50-58	삼상18:1-9	삼상18:10-16	삼상18:17-30	삼상19:1-7	삼상19:8-1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성도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공감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3.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온 위로와 격려의 경험들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4. 인생의 고난을 통해 혹은 고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